

자영업자 폐업 행렬...광주·전남 11월 1만3000명 줄었다

전년비 각각 7000명·6000명 감소...내년까지 덮쳐 우려 확산 광주 실업자 늘고 전남 일자리 질 낮아져 고용시장 갈수록 악화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 1만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출로 생계를 이어오던 지역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민들의 소비도 위축되면서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 또는 폐업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광주·전남의 취업자 수, 고용률 등 고용지표 역시 또다시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월 광

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역 자영업자 수는 지난달 기준 44만4000명으로, 전년(45만7000명) 대비 1만3000명 감소했다. 광주 자영업자가 15만4000명에서 14만7000명으로 7000명 줄었고, 전남은 30만3000명에서 29만7000명으로 6000명 감소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향후 지역 자영업자 수가 지속 감소할 것이라는 예

측도 나오고 있다. 각종 동향회와 송년회 등 연말 행사로 자영업자들의 대목 시즌이 돌아왔지만, 계약명 선포 및 대통령 탄핵 요구 등 국내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경기는 악화하고 있는 데다 각종 모임들도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이 지역 경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및 ECOS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소비 의향과 연결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기준 91.1로 전월보다도 3.8포인트(p)나 떨어졌고, 기준점(100)을

하회한지는 30개월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고용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광주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는 지난달 기준 7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78만명) 대비 1만4000명(-1.8%) 줄었다. 고용률도 1.0%p 하락한 59.9%를 기록했다. 일자리 질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44만1000명으로 1년새 1만명(2.2%) 증가했고, 임시근로자(-6000명·-4.5%)와 일용근로자(-3000명·-8.3%)는 감소했다.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1년 전(1만9000명)보다 3000명(16.6%) 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0.5%p 오른 2.8%를 기록했다. 전남의 경우 취업자 수, 고용률 등의 지표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일자리 질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15세 인구 중 취업자는 101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고용률은 66.9%로 0.1%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1만5000명(-3.6%)나 감소한 반면, 일용근로자(5000명·11.9%)와 임시근로자(5000명·2.9%)는 증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일찍 할수록 큰 혜택...지역 대형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 행사 기간 최대 50% 할인 롯데마트·슈퍼 선택지 대폭 확대

지역 대형마트 업계가 이번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차례대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내년 설 명절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인 데다, 소비자들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전예약 행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 광주점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받는다. 광주점은 고물가 기조를 반영, 명절 선물로 적합한 과일세트 가격을 전년보다 낮춰 5만원 미만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사과 선물세트의 경우 전년 대비 10%가량 낮게 책정했다. 축산과 수산 선물세트로는 10만원 미만 가격대의 '극 가성비 한우 세트', '특선 제주 은갈치 세트(0.9kg)' 등의 신규 세트를 마련

했다. 사전예약 기간 중 행사카드를 선물세트를 구매할 시 상품별로 최대 50%를 할인하고,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2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번 사전예약 이벤트에서는 일찍 예약할 수록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차 기간(12월13-15일)에는 결제 금액의 12%를 신세계상품권으로 증정한다. 결제 금액대별로 최소 3만6000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어 2차 기간(12월9-15일)에는 결제 금액의 8%를 상품권으로 증정하며, 결제 금액대별로 최소 2만4000원부터 최대 80만원까지 증정받을 수 있다. 상품권 증정 이벤트는 최소 30만원 이상 결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롯데마트·슈퍼는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80여

종의 선물세트를 마련, 가성비를 높인 실속형부터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지를 확대했다. 특히 '한우 정육세트 2호'는 엘포인트 회원가 9만9000원에 판매하고, 10개 구매시 1개를 추가 증정한다. 이 밖에도 '생선 스테이크 세트(1.8kg)'를 10만원 이하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롯데마트·슈퍼는 사전예약 기간 중 행사카드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이번 사전예약 행사에서는 한우와 주류 선물세트 선택지를 늘리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사전예약 기간 중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최대 600만원의 상품권 또는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난방 가전 작지만 따듯해요"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을 맞아 9층 소형가전 매장에서 다양한 소형 난방 가전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 대표 난방 제품인 카본히터를 비롯해 탄소온열 매트 등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신세계 19일까지 '정남미명과' 팝업스토어

광주신세계가 오는 19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서 '정남미명과'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사진> 정남미명과는 강릉에서 시작된 유명 빵집으로, SNS 등 커뮤니티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광주신세계는 특히 강릉 산지의 감자, 고구마, 밤, 옥수수, 대파 등 농산물을 이용한 구황작물빵이 겨울철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황작물빵은 짙은 색대 또는 아몬드 선호하는 귀여운 모양으로 조리되며, 국내산 농산물로 속재료를 만들고 찹쌀로 반죽을 해 식감이 쫄득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제품으로는 감자빵, 고구마빵, 옥수수빵, 밤빵을 개당 3500원에, 양파빵과 마늘빵, 대파빵은 개당 3800원, 종합세트(10개입)는 3만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기술원 식물생장용조명 모듈 안전요구사항 국제표준 제안

국내 기술 글로벌 시장 선점 기대
한국광기술원이 세계 최초로 '식물 생장용 조명 LED모듈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국제표준 NP(New Proposal)을 제안해 향후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물생장용 LED 패키지 국제표준은 지난 2월 출판되었으며, 식물생장용 LED 등기구 성능-안전에 대한 국제 표준은 오는 2026년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일 한국광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표준 기술력 향상사업으로 식물생장용조명의 국제표준화를 추진중이며, 지난 2021년 2월 1차 식물생장용표준 국제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31차

국제회의까지 지금까지 8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해 식물생장용 조명의 국제표준화를 이끌고 있다. 다만 식물생장용 일반조명용 LED 광원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5년 기한 초과로 올해 폐지되면서 새롭게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난항이 예상되었지만, 식물생장용 LED 모듈의 안전요구사항 표준화는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식물생장용조명의 국제표준화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조명분과에서 진행중이다. 조명계 한국광기술원 디지털조명연구본부장은 "세계 최초의 식물생장용 LED 모듈 안전요구사항 국제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어촌공사 '지속가능경영 정부 포상' 장관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0일 개최된 '2024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사진>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성과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지역 에너지전환으로 녹색경영 전개 ▲동반성장·지역상생·안전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윤리·인권 경영체계 고도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는 민관협업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농어가 친환경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실제 공사는 해당 사

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55만 t CO2를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축구장 3개 규모의 소나무 숲이 1년동안 온실가스를 흡수한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 생태환경 복원사업을 통해 맹꽁이와 금개구리 등 법적 보호종을 포함한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1만2336㎡ 규모 생태계 회복을 촉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 부문에서는 청년농촌보급리주택 조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통한 지역 자생력 증진 활동,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 등이 호평을 받았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역소멸 등 농어촌이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기술혁신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절차 마무리

내달 중 대표 등 임원진 선임
대한항공이 11일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하면서 두 대형항공사의 합병 절차가 끝났다. 대한항공은 12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다음달에 아시아나항공과 산하 항공사들의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우선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을 두고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문화 융합, 마일리지 통합 등 완전한 결합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 가까이 이어진 세계 14개 '기업결합 필수 신고국'의 승인 절차가 이날부터 종결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최종

승인한 데 이어 미국 법무부(DOJ)가 신주 인수 이전까지 합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합병에 따라 신주 대금 납입일 하루 뒤인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합병은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신주 인수인)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대한항공은 다음 달 16일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새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의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우선 통합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절차에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완전히 흡수된 2026년 말 이후부터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은행 '굿바이 연말 이벤트'...신용카드 회원 추첨 경품 제공

이달까지...가맹점 무이자 서비스도
광주은행이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2월 31일까지 '굿바이 2024 연말 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주은행 굿바이 2024 연말 이벤트는 신용카드 개인회원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와, 모든 가맹점 무이자 할부 서비스 이벤트로 구성됐다. 경품추첨 이벤트는 광주은행 신용카드 이용자 3683명에게 4가지 구성으로 이뤄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광주은행 신용카드에 대해 ▲모

든 업종에서 이용한 고객 중 3333명을 추첨해 편의점 상품권 2000원권 증정 ▲온라인 업종에서 20만원 이상 이용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 증정 ▲음식 업종에서 20만원 이상 이용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 증정 ▲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업종에서 20만원 이상 이용자 중 50명을 추첨해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을 증정한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KJ 카드' 전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모든 가맹점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품 추첨은 오는 2025년 1월 16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벤트 응모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와 광주Wa뱅크 앱,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동구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올 한 해 KJ카드에 큰 사랑을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내년에도 고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환율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은행·보험 건전성 규제 완화 검토

비상계급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재무적 안정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의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 공급, 정상적인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는 완충자본 비율 규제,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과 관련 국가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2.51 (+24.67)
↑ 코스닥	675.92 (+14.33)
↑ 금리(국고채 3년)	2.536 (+0.012)
↑ 환율(USD)	1433.75 (+6.85) (오후 5시 55분 기준)